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 · 미국 · 호주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es in LIS Education in Korea, U.S.A. and Australia

장 윤 금(Yunkeum Chang)**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호주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북미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33개 대학으로 확산된 iSchool(Information School) 운동의 사례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주요 현안 및 과제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 및 본질 그리고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 미국 및 호주 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 간 교육과정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전 세계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iSchool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 교육의 미래와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cavate the current critical issues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LIS) education. To do so, this research conducted a thorough comparative study of LIS education in Korea, U.S.A., and Australia, and the extensive research of the iSchool(Information School) movement currently involving 33 universities all around the world started with the initiative in U.S.A.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and the essence of LIS education and research trends by reviewing and analyzing comparatively the prior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hen, it examined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LIS curricula in Korea, U.S.A., and Australia and performed the inter-country analysis. Finally, the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of the future of the LIS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ions through an in-depth case research of the iSchool movement spreading out rapidly all over the world.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미국 문헌정보학교육, 호주 문헌정보학 교육, 아이스쿨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LIS Curriculum, LIS Education in U.S.A.,
LIS Education in Australia, iSchool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0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unkeum@sookmy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11월 29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12월 12일

1. 서론

우리나라는 1957년 최초로 학부과정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이후 2011년 현재 문헌정보학(혹은 도서관학) 전공이 학부에 개설된 4년제 대학은 총 34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정보학 교육은 지난 50여년 간 시대적 혹은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즉 처음 도서관학과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부분의 대학이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로 학과 명칭을 개칭하였으며 1996년 국내 대학에서 학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진행되다 있다. 아울러 최근 몇년간 많은 대학이 다시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새로운 변화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천 및 주요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 및 정체성, 교과과정의 변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 구축 등에 다양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그 범위와 연구 대상이 국내 교육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문헌정보학 교육이 회귀되는 변화의 시점에서 한국, 미국 및 호주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현황,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연구 및 현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국가 간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도

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호주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도입 초기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교육모델로서,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진적 발달과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KALIPER 프로젝트 수행, 학제적 융합의 시도, 최근 들어 전 세계 33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iSchool(Information School) 운동을 주도하는 등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헌정보학 교육제도를 복합한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국가적 차원의 문헌정보학교육 개편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비교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연구절차는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교육의 정체성, 시대적, 환경적 변화 및 미래의 전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 미국 및 호주 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 간 교육과정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전 세계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iSchool 모형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교육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2.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 연구

2.1 문헌정보학 교육의 정체성

우리나라는 연세대학교에 1957년 최초로 도서관학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이 설립됨으로써 정규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전문 사서교육이 시작되었다. 박동철(2010)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같은 해에 연세대학교에 한국도서관학당이 설치되어 도서관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고급사서과정’(1957-1971) 및 ‘사서교사과정’(1957-65)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설립에는 미국정부의 지원과 당시 교육사절단으로 연세대학교에 파견되었던 조지아 피바디사범대학의 도서관계 인사들의 도움이 설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후 10여 년 이상 동안 운영된 ‘고급사서과정’의 219명에 이르는 졸업생들 중 이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된 사례가 많아 초기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학부 전공은 영어영문학, 국어국문학, 사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분야와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교육과정이 외국인 교수에 의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서 양성 교육은 “도서관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문헌정보학의 사상과 철학보다는 도서관이란 틀 속에서 업무처리 기능 중심의 교과내용에 중점을 두는 상황”(p.72)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박동철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고찰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초기 도입과정부터 미국의 사서 양성제가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었다는 점과 문헌정보학 교수진의 문헌정보학의 학문적인 이론의 바탕보다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배경을 가진 교수진에 의한 교과과정이 운영됨으로써 학문의 초기부터 학문의 본질이나 철학보다는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으로 확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동철(2010)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정체성과 학문성이 모호한 현실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도서관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도서관 이란 ‘시설’보다는 ‘시설로서의 성격’ 즉 ‘도서관이 갖는 가치 또는 중요성’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표준교과과정 확립과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과 도서관의 사상과 철학을 내재한 학문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재영(2010)은 대학별 특화된 교과과정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장사서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나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며 문헌정보학교육의 철학이나 직업의식 등의 교과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학문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원리를 중시교육하면서 현장의 실무와 관련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모든 관중

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보다는 서비스대상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노동조(2008)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서를 선발하기 위한 국가고시 등에서 채택되는 교과목에 대한 교육 영역과 교육 내용도 표준화 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공 필수 13과목과 전공 선택 10개 과목으로 구성된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표준교과목의 영역 중 하나인 '도서관과 사회'는 전공심화기초 과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교과목 내용에 '도서관사'를 포함하고 있다.

2.2 교과과정의 시대별 변화

엄영애(2009)는 지난 50년간의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를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구분하여 시대별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주요변화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과목들의 변화로는 1960년대의 교과과정에는 도서선택과 도서관자료가 1980년대와 2000년대에는 자료조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대의 교과목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어, 한자, 원서강독, 동양서지 및 도서관사 등의 과목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도서관경영관리는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60년대에 거의 90학점을 취득해야 했던 전공이수 학점이 45학점으로 크게 감소된 반면 교과목의 과목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교육과

정에서 필수과목의 개념이 많이 퇴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전문성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합한 교육의 변화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영희, 안인자(2009)는 지난 20여년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를 학과제 또는 학부제가 교과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약 20여년 간의 교과과정을 '전면 학과제 시행시기(1991)', '학부제 도입시기(1997)', '학부제 실시시기(2004)', '학과제 회귀시기(2009)'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교과목의 개설과목의 변동 현황 및 각 대학별 전공 교과목의 영역별 분포도와 연도별 분포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정보학 전공의 총 개설과목 수는 1991년에 비해 2009년에는 19.47%가 증가한 총 175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을 기초, 핵심(필수), 심화(선택)로 구분하여 학부제 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초과목과 선택과목의 경우 전체 개설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평균과목 비율이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핵심과목은 학부제 실시 이후 필수과목이 전체 개설과목 수에서 차지하는 평균과목 비율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영역별 분포도를 조사하고 연도별 분포도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부제 도입 이후 어학 분야는 급격히 감소하였고(-53.97%)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서지학도 과목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조사제공학, 정보학, 기록관리학은 개설과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보기술 및 환경적 변화

구본영(2000)은 디지털 정보환경 및 정보기술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교육과정의 변화 사례 분석을 통해 변화된 교과목들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1) 도서관학 철학의 기반위에 디지털시대의 폭넓은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2) '도서관'이란 학과명이 사라지고 전통적 핵심과목이 변경되고 있으며, 3) ALA의 인가된 학교의 대다수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6개 필수영역 주 정보자원(23%), 정보경영(20%), 정보접근(19%), 정보시스템과 기술(18%), 연구(10%), 정보정책(10%)의 순으로 포함하고 있고, 4)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기술과목, 인터넷과 관련된 과목 그리고 정보심화과목과 정보학 기술과목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영애(2003)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교육정책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부제 이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기초 과목으로 볼 수 있는 코어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설되는 코어 교과목들이 이들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게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코어 과목들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정보전문가 교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헌정보학과 학부제 도입의 초기 연구인 김성수(1998)의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개혁안으

로 추진된 학부제의 도입이 문헌정보학 교육에 가져올 주요 문제점으로 '복수전공제' 및 '최소 전공인정학점제'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30-36학점만 이수하고 학사학위와 동시에 '2급 정사서 자격증'이 수여될 경우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전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을 지적하였다.

한복희(1998)는 학부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 32개 문헌정보학과 중 학부제를 시행중인 9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새로 개정된 교과과정에 공통적인 필수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영역(문헌정보학 일반, 자료조직, 경영관리, 정보조사제공, 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된 새로운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노영희·안인자(2009)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학부제나 학과제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보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환경 적응력이 좋은 미래 사서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p.450)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새로운 자격증 및 높은 직제 신설로 인한 기록관리학의 수요증가, 일반 혹은 개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정보다는 특성화, 차별화되기 위한 과목의 시도가 두드러짐을 지적하였다.

엄영애(2009)는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전문직을 배출하려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적합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하여 이제환 외(2006)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학문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며, 대학 교과과정의 모든 관종을 다루는 보편적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이 향후에는 서비스대상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을 조사한 노영희·안인자·황금숙(2007)의 연구는 국내외 전문사서 수요 분석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격여건을 사서 구인사이트 분석 방법 및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문사서 유형을 주제별, 기능별, 대상별로 분류하였고 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을 제안하였다.

3. 국외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 연구

Borgman(2000)은 그의 저서 『From Gutenberg to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서 정보통신의 변화는 구텐베르크의 혁신과 비교할 수 있는 전 세계 정보 인프라 구축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미래

의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정보의 접근과 유통을 극대화 시키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국외 문헌정보학 교육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영역의 확대를 위한 변혁과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도입 등의 혁신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의 연구,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를 변혁 혹은 혁신으로 보는 연구, 실무현장의 요구와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존의 문헌정보학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제시 연구 등의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3.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Van House와 Sutton(1996)은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를 Pierre Bourdieu의 생태학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연의 생태학이론과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헌정보학교육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란 틀 안에서 현재의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정보'라는 새로운 니치(niche)를 수용하며 교육과 연구 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예로 교육의 특성화(specification), 학제간 융합화(hybridization, interdisciplinarity) 그리고 교육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Boady-Preston(2010)은 미래의 정보전문가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한 규명을 위해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대한 근대적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전문가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정보전문가로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전문가의 기술, 지식,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협의회 혹은 단체 등을 통한 고유한 전문직의 문화 및 가치 확립, 전문적 기술의 실습, 전문직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전문성에 대한 미래는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통한 진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능이 퇴화되어 사라진 공룡과도 같은 미래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Partridge와 Hallam(2006)의 연구는 앞으로 문헌정보학 교육 및 현장에서의 업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의학 분야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수행하는 방식(evidence-based medicine)과 같이 문헌정보학 교육도 학생, 졸업생, 현장 실무자, 이용자의 요구 및 환경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근거에 입각한 교육 실습인 EBP(Evidence-Based Practice)의 이론이 모든 교육의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밀레니엄세대로 대변되는 현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와 학습특성 그리고 정보탐색행동 등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3.2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혁 vs. 혁신

미국도서관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Michael Gorman(2003)은 독일에서 개최된 EUCID/ALISE 컨퍼런스의 기조강연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주요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문헌정보학교육은 점차 정보학에 치중된 교과개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보학전공의 교수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계의 성별은 점차 정보학전공의 남자 교수와 도서관학전공의 여자 교수의 비율로 간격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으며 또한 여교수가 은퇴하게 되는 자리는 정보학전공 교수로 채워질 것이 예측된다. 3) 미국의 대표적인 문헌정보학과 중 문헌정보학 교육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 연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4) 문헌정보학 교육의 핵심교과목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더 이상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인가 기준에도 더 이상 이러한 핵심교과목에 대한 사항은 심사 기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 대학의 교육 목적과 비전 등 개별 교육기관의 특성화에 기준을 둔 선정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6) 전문직 사서의 전문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7) 문헌정보학 교수들 중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교육의 사명, 정책, 프로그램, 가치 등에 대한 신념을 잃어 가는 경향이 있다. 8)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헌정보학계에는 정보기술의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기술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10) 실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문헌정보학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정보학 연구 등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순수연구만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Gorman의 지적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입장의 논리이며 정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의견이 나타난 바 있다.

Dillon과 Norris(2005)는 Gorman(2003)의 논쟁에 반박하면서 첫째, 교수 성비의 경우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의 변화추이를 보면 80년대는 교수 성비가 남자 60% 여자 40%였으나, 2003년에는 남자 49.2%, 여자 50.8%로 여자 교수의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새로 채용되는 조교수의 경우 2002/2003년 기준 54%로 나타나고 있어 Gorman의 정보학교과목의 남자교수가 증가함으로 성비가 조절될 것에 대한 지적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문헌정보학 커리큘럼에 관한 2004년 Markey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미국 전역의 56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조직(Organization), 참고봉사(Reference), 기초(Foundations), 경영(Management), 연구방법 혹은 정보기술(Research Methodology or Information Technology)의 5개 영역 코어과목이 연구대상의 학교에서 코어 교과목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변화 즉 미국도서관협회의 인가를 받은 대학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명에 더 이상 'librar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

는 현상이나 정보기술 중심의 교과과정 변화, 학생 및 교수의 성별 및 배경 변화 등의 정보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문헌정보학 교육이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분석한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KALIPER 프로젝트(Kellogg-ALISE Information Professions Education Renewal project)는 Kellogg 재단이 지원하고 미국 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의 5개 팀(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하는 13개 교육기관의 20명의 연구팀)의 연구진이 1998년부터 2000까지 약 2년간 수행한 대규모의 프로젝트이다. Pettigrew와 Durrance(2001)는 KALIPER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6가지 주요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기존의 '도서관'이란 영역에 정보 환경과 정보 문제를 다루는 확대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대학 명칭에서 '도서관'이란 단어가 '정보'로 대체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 영역을 시도하고 있으며 코어교과목은 이용자중심의 교과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과과정에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넷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안에 학교도서관, 의학도서관, 아카이브 등 특화된(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보다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형태의 교과과정을 제공한

다. 즉 교과과정에 원격강의, 다른 대학 문헌정보학과와의 학점교류 등의 다양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섯째,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있어 학부, 석사, 박사를 막론하고 학제간 융합을 통한 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등 교과과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 KALIPER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를 정보환경에 대한 위기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Wilson 외(2010)는 1959년부터 2008년까지 약 50년간의 호주 대학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959년 호주 문헌정보학 고등교육의 시작인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 사서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개설된 문헌정보학 교육은 1975년에는 18개 대학에 교과과정이 개설되는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1980년대부터 점차 감소되어 2008년에는 10개 대학에만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감소와 더불어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총 수도 대폭 감소되어 1985년에 총 164명의 교수가 17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으나 2008년에는 전체 10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총)수는 64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Wilson 외(2010)는 호주도서관협회인 ALIA 통계조사에 따르면(2010 ALIA 통계) 1996년 호주 전체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 총수 역시 3,343명에서 2005년 2,35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교수 비율이 1996년 25:1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7:1로 나타나 교수의 강의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연구 감소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 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사례연구인 Hilder 외(2010)의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미래지향적인 교과 모델이 더 이상 도서관 관련 교과목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교과 모델 구축을 시도한 'Charles Sturt University'의 학부 및 대학원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코어 과목이었던 '도서관 중심의 교과과정을 정보(information)-인간(people)-기술(technology)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코어 교과목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혹은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혹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bottom up' 방식을 반영했음을 강조하였다.

3.3 실무현장과 교과과정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더불어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졸업 후 취업하게 될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관 등의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격요건 등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이러한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와 전문사서 구인 사이트에 나온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하는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

Broady-Preston(2008)은 웹 2.0 환경에서의

정보전문가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영국 문헌정보학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을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정보전문가를 채용하는 요건이 점차 정규 교육 학위에 상관없는 전문능력과 경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웹 2.0을 넘어 웹 3.0, 혹은 4.0의 시대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기술과 더불어 인간관계의 기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정보전문가의 영역은 현재의 벽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을 예측하였다.

Sanders(2008)는 호주의 문헌정보학 학부 교과과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 공공, 국회, 특수 도서관 등의 다양한 기관 실무 담당자 및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 교과과정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호주 대학에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개편의 노력이 있었던 결과임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8.9%가 향후 전문사서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용자서비스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people skills), 정보기술과 웹 관련기술 그리고 경영 및 관리자 기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사서 혹은 정보전문가 구인광고의 내용 분석은 그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노영희 외 2008; Lynch & Smith 2001; Croneis & Henderson 2002; Marion et al. 2005; Kennan et al. 2006; Choi & Rasmussen

2009). Marion 외(2005)의 연구는 호주와 미국의 구인 사이트에 나온 대학, 공공, 특수도서관 전문사서 채용을 위한 총 395건의 광고 내용을 분석을 통해 호주와 미국의 전문사서 자격 요건 및 기술 등에 대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경우 전문사서에 대한 채용 공고가 대부분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호주의 경우는 대부분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 채용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구인 사이트가 아닌 사설 직업소개소가 일반 주요 신문이나 사설 직업소개소의 책자에 구인 광고를 내게 됨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사서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미국도서관협회가 인가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는 요건이 명시되고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는 문헌정보학 학위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구인광고의 유사점으로는 대학, 공공, 학교도서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요건으로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행동특성(Behavior characteristics)'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Environment)'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나타났다. Mario 외(2005)는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더 단순한 기술을 다루는 능력보다는 대인관계 기술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는 것이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Choi와 Rasmussen(2009)의 연구는 특히 미국의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전문사서의 자격요

〈표 1〉 미국 관종별 전문사서 구인구직 비율(2006년-2009년)

	아카이브(전문사서)		도서관(일반사서)		전체	
	(명)수	퍼센트	(명)수	퍼센트	명(수)	퍼센트
대학도서관	178	62.7%	482	63.6%	660	63.3%
정부도서관	32	11.3%	51	6.7%	83	8.0%
학교도서관	0	0.0%	19	2.5%	19	1.8%
공공도서관	2	0.7%	133	17.5%	135	13.0%
특수도서관	0	0.0%	6	7.4%	56	5.4%
기타	72	25.4%	17	2.2%	89	8.5%
전체(명)	284	100.0%	758	100.0%	1,042	100.0

출처: Reeves & Hahn 2010, 109.

건과 기술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위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간 대학 전문사서 구인 사이트인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CRLN)'에 나온 총 363건의 디지털 전문사서에 대한 채용 공고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도서관의 현상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기술과 경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생성과 관리기술, 메타데이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영기술 등이 디지털 전문사서에 필요한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판명되었다.

Reeves와 Hahn(2010)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전역에 배포되는 두 개의 구인광고 책자와 두 개의 전자 그룹리스트, 그리고 두 개의 인터넷 직업 정보은행(Internet Job Bank) 사이트로부터 입수한 1,042건의 구인광고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과 대학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전문 기술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즉 1,042 건의 구인광고 분석결과 60% 이상이 대학도서관 채용 광고였으며 이는 일반사서와 아카이브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사서의 평균연봉은 상향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기

관 도서관 사서의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케이션, 서비스 성향, 협동심, 팀워크능력 등이 필요하며 많은 경우 신입직원인 경우에도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 미국, 호주 문헌정보학 교육 현황 비교

4.1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 현황

현재 우리나라 학부에 문헌정보학(혹은 도서관학) 전공이 개설된 4년제 대학은 총 34개 교에 이르고 있다(〈표 3〉 참조). 연세대학교에 1957년 학부 도서관학과 및 2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1959년 이화여대에 도서관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이어서 60년대에 중앙대(1963년)와 성균관대(1964년)에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이 개설된 바 있다. 이후 1970년대에 경북대, 숙명여대, 대구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대학, 1980년대에 19

개 대학, 1990년대에 2개 대학, 2000년대에 2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28개 교 그리고 박사과정에 15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었다.

현재 2011년 11월 기준 전국의 34개 문헌정보학과 중 29개 대학이 학과제를 운영하고 있어 약 85%에 해당하는 대학이 현재 학과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2009년 노영희·안인자의 연구 결과 나타난

〈표 2〉 2011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 교육 현황

(2011년 11월 기준)

No	대학명	소속대학	학과/전공명	교수 (명)	학과제 운영	g학부 설치연도	대학원설치연도	
							석사	박사
1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78	2005	
2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2		1984		
3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3	1999	2001
4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74	1978	1999
5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3	2005	
6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0	1989	1999
7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3		
8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1	2008	
9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2	√	2007		
10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1	1997	
11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3	√	1976	1997	
12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91	2001	
13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0		
14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5	√	1982	1996	
15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2	2009	
16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0	1989	2008
17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7	√	1984	1989	1993
18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0	1980	1993
19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0	1988	
20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5	√	1964	1971	1974
21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5	√	1976	1983	2006
22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79		
23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5	√	1957	1957	1980
2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6		1959	1959	1987
25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5	√	2010		
26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0	1992	1998
2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80	1999	2003
28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4		1983	1994	
29	중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3	√	1994	2001	
30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5	√	1963	1972	1983
31	청주대학교	인문대학(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4		1979	1984	
3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6	√	1979	1991	2002
33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4	√	1980	1997	
34	한성대학교	인문대학(지식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8		1981	1998	2006

비율 70%에 비해 2년 만에 15%가 증가된 결과이다. 또한 전국 34개 문헌정보학과와 교수(수)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2명에서 가장 많은 경우 8명의 전임교수가 있으며 전임교수가 4명인 학교가 총 13개 대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4개 문헌정보학과와 총 전임교수 총수는 15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영애(2003)는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이 포함하는 교과목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과정의 내용과 교과과정의 운용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를 기대해야 하지만 대학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과과정이나 교육환경이 결정이 되고 있으며 특히 4-5명의 교수로는 필요한 전문화의 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조사한 국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은 학제 간 통합을 통해 교과목의 다양화, 교수진의 규모 및 전공 영역 확대, iSchool 운동과 교과과정의 혁신적인 개편 등 새로운 개혁의 노력을 거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회귀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세계적인 변화 추이와 국내 실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며 급변하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 현황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1886년 Melvil Dewey가 콜럼비아대학에 설립한 'School of

Library Economy'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며 1928년 시카고대학에 문헌정보학 박사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초기 단계에 연세대학교의 '고급사서과정'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국내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영입되면서 초기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학부 전공이 영어영문학, 국어국문학, 사학 혹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럼비아대학의 박사과정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문헌정보학 교수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부분 문헌정보학 박사 및 석사를 소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세기 말로 들어서면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주제전문가들이 교수로 채용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Weech & Pulzhenskaia 2005).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에 '정보학' 커리큘럼이 합해지면서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앞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도서관'의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정보연구'(Information Studies), 혹은 '정보'(Information)로 학과 명칭이 개칭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 '기술'(Technology), '아카이브'(Ar-

chives) 등의 명칭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 현재 ALA에서 인증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총 57개 대학으로 이중 50개 교육과정은 미국 대학이며, 5개 대학은 캐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대학(미국령)으로 구분된다(〈표 3〉 참조).

하지만 이러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이후 주요 대학의 ALA 인가 프로그램의 폐지가 이어졌으며 학과 폐지, 학과 이양 혹은 통합 등의 이유로 인가가 폐지된 문헌정보학 과정은 총 29개교에 달하고 있다(〈표 4〉 참조). 이와 같은 교육과정 폐지와 같은 변화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학제 간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변화로 발전되었다. Wiggins와 Sawyer(2011)는 이러한 학제 간 병합의 사례로

Rutgers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커뮤니케이션학과 및 저널리즘학과와 병합하였고 UCLA의 경우는 교육학과와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그램을 개편한 사례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정보통신기술분야로 전면적인 개편·확대한 Berkeley 대학, Syracuse대학 그리고 Michigan 대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변화는 후에 iSchool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버클리대학은 School of Information으로 학과 명칭에서 'Library'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Design, Social science, Management, Law, Policy 등의 근접 학문과의 학제적 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문헌정보학 석사 교육과정 ALA 인가 대학 및 인가 기간

(2011년 11월 기준)

No	미국 ALA 인가 대학명	학과명	ALA 인가 기간
1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46/47 - 현재
2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1974/75 - 현재
3	Dominic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36/37-1957:1960/61-현재
4	Drexel University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924/25 - 현재
5	Emporia Stat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1930/31-1958:1964/65-현재
6	Florida State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951/52 - 현재
7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51/52 - 현재
8	Kent Stat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1/62 - 현재
9	Long Island University	Palmer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9/70 - 현재
10	Louisia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32/33 - 현재
11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3/74 - 현재
12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924/25 - 현재
13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68/69 - 현재
14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54/55 - 현재
15	San Jose Stat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7/68 - 현재
16	Simmons College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4/25 - 현재
17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970/71 - 현재
18	St. Catherine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9/30-1959:2009/2010-현재
19	St. John's University	Di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4/75 - 현재

No	미국 ALA 인가 대학명	학과명	ALA 인가 기간
2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1930/31-1959:1965/66 -현재
2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70/71 - 현재
22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928/29 - 현재
23	Texas Woman's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36/37 - 현재
24	University of Alabama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72/73 - 현재
25	University of Arizona	School of Information Resources & Library Science	1972/73 - 현재
26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1960/61 - 현재
27	University of Denve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1932/33-1987:2003/04-현재
28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1965/66 - 현재
29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4/25 - 현재
30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9/70 - 현재
31	University of Kentuck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40/41 - 현재
32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of Information Studies	1965/66 - 현재
33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Information	1926/27 - 현재
34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Information Science and Learning Technologies	1967/68 - 현재
3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1932/33 - 현재
3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Greensboro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80/81 - 현재
37	University of North Texas*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5/66 - 현재
38	University of Oklahoma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30/31 - 현재
39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1962/63 - 현재
40	University of Rhode Island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69/70 - 현재
41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2/73 - 현재
42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3/74 - 현재
43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78/79 - 현재
44	University of Tennesse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1972/73 - 현재
45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Information	1951/52 - 현재
46	University of Washington*	Information School	1924/25 - 현재
47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24/25 - 현재
48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974/75 - 현재
49	Valdosta State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6/2007- 현재
50	Wayne State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1965/66 - 현재
51	University of Puerto Rico(미국령)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88/89 - 현재
	캐나다 ALA 인가 대학명	학과명	ALA 인가 기간
52	Dalhousie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1970/71 - 현재
53	McGill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1927/28 - 현재
54	University of Albert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68/69 - 현재
55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	1961/62 - 현재
56	University of Montreal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7/68 - 현재

* 학부 교과과정 운영 대학

〈표 4〉 ALA 인가 폐지 대학 - 미국

(2011년 11월 기준)

No	미국 ALA 인가 폐지 대학명	ALA 인가 기간	기타
1	Alabama Agricultural and Mechanical Univ.	1973/74 - 1982	1981 폐지
2	Atlanta University	1941/42 - 1988	Clark Atlanta University로 대학명 변경
3	Ball State University	1978/79 - 1987	1985 폐지
4	Brigham Young University	1968/69 - 1995	1993 폐지
5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1924/25 - 1962	1962 폐지
6	Carnegie Library of Atlanta	1924/25 - 1930	Emory 대학으로 이양(1930)
7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24/25 - 1987	1986 폐지
8	Clark Atlanta University	1941/42 - 2005	전)Atlanta University; 2005 폐지
9	College of William and Mary	1936/37 - 1949	1948 폐지
10	Columbia University	1925/26 - 1993	1992 폐지
11	Emory University	1928/29 - 1990	전)Carnegie Library of Atalata; 1988 폐지
12	Hampton Institute	1926/27 - 1940	1939 폐지
13	Marywood College	1944/45 -1956	현)Library Science 자격증프로그램 운영
14	New Jersey College for Women	1927/28 - 1953	1952 폐지
15	New York Public Library	1924/25 -1926	New York State Library School과 통합운영; Columbia University로 이양(1926)
16	North Carolina College for Women	1929/30 - 1934	1933 폐지
17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of	1967/68 - 1994	1994 폐지
18	Our Lady of the Lake College	1941/42 - 1957	1956 폐지
19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George	1930/31 - 1990	Vanderbilt Univ와 통합(1979):1988 폐지
20	St. Louis Library School	1924/25 - 1933	1932 폐지
2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Geneseo	1944/45 - 1959; 1966/67 - 1985	1983 폐지
22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1924/25 - 1994	현재 iSchool
23	University of Chicago	1932/33 - 1991	1990 폐지
24	University of Minnesota	1933/34 - 1986	1984 폐지
25	University of Mississippi	1979 - 1986	1984 폐지
26	University of Oregon	1966/67 - 1980	1978 폐지
2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36/37 - 1987	1986 폐지
28	Vanderbilt University	1974/75 - 1990	참조-Peabody 대학, 1988 폐지
29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46/47 - 1984	1983 폐지

4.3 호주 문헌정보학 교육현황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에 전문사서교육에 대한 인증을 하는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경우는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 ALIA)에서 사서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문사서에 대한 자격증이 대부분 인증된 문헌정보학 석사과

정을 이수할 경우 사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인 것과는 달리 호주의 경우는 ALIA가 인정한 학부과정(3년 과정), 학사 후 과정(1년 과정), 혹은 석사과정(1년 반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전문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Marion 외 2005).

현재 호주 ALIA에서 인가한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이 있는 대학은 총 5개 대학이며(〈표 5〉

* 참조). ALIA 인가를 받은 학사 후 과정은 총 1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부 혹은 학사 후 과정인 즉 Graduate 프로그램 혹은 Masters 프로그램에 온라인 원격교육이 제공되는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 참조). 이는 1975년 총 18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었던 것에 비해 55%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5〉의 호주 문헌정보학

〈표 5〉 호주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ALIA 인가 대학 현황

(2011년 11월 기준)

No	호주 ALIA 인가 대학명	학과명	학부/대학원 학위명
1	Charles Sturt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Bachelor of Information Studies Master of Information Studies
2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B. of Arts(Librarianship and Corporate Info. Management) Graduate Diploma in Info. and Library Studies, M. of Information Management(Librarianship)
3	Edith Cowan University	School of Computer and Security Science	M. of Information Services, Graduate Diploma of Science(Information Services)
4	Monash University*+	Caulfield School of Info. Technology	B.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IM Major) Graduate Diploma in Information and KM, Master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Professional, Master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
5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Gardens Point)+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 of Information Technology
6	RMIT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IT and Logistics	B. of Business(Information & KM) Graduate Diploma in Information Management, M. of Information Management
7	University of Canberra	Faculty of Arts and Design	M. of Information Studies in Librarianship
8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School of Computer and Info. Science	Graduate Diploma of Library and Info. Management, M.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9	University of Tasmania+	School of Computing and Info. Systems	Graduate Diploma of Information Management
10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B. of Arts in Communication(Information and Media) -Graduate Diploma in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Diploma in KM, Master of Arts in Information and KM

* 학부 교과과정 운영 대학
+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 대학

〈표 6〉 호주 연도별 문헌정보학과 학부 및 대학원 등록 학생(총)수(1996-2009)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학부(명)	1,703	1,745	1,134	1,164	1,189	1,209	1,164	1,144	989	951	894	997	617	769
대학원(명)	1,640	1,917	1,493	1,373	1,429	1,425	1,456	1,578	1,593	1,539	1,418	1,542	1,311	1,222

출처: ALIA 통계자료. <<http://www.alia.org.au/employment/enrolment.courses/>>.

〈표 7〉 호주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총)수 및 교수(총)수 연도별 변화 추이(1960-2008)

Year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Total number of academic staff	2	7	41	116	164	143	139	133	100	86	64
Total number of LIS programs	1	2	7	18	17	16	16	14	11	12	10

출처: Wilson 외 2010, 253.

교육과정의 학과명과 학위명을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더 이상 'Library'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Computer' 등의 단어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독립적인 학부 혹은 학과로 운영되기보다는 경영학, 컴퓨터, 사회학 등의 큰 영역 안에서 영세적인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ilson 외(2010)의 연구에 나타난 총 문헌정보학과 교수(총)수는 1980년에 총 164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총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수 및 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학교과과정의 폐지 등의 문제는 호주 문헌정보학과의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문헌정보학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Henninger et al. 2011).

4.4 iSchool 운동과 문헌정보학 교육의 미래

북미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33개 대학으로 확산된 iSchool(Information School)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문헌정보학 교육 프로그램을 리퍼포징(repurposing)한 형태, 다른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병합한 형태, 그리고 다른 분야의 신입 교수를 채용함으로써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King 2006).

iSchool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학에 대한 정의는 '정보 인간, 그리고 기술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현상을 통섭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학문이며 정보에 대한 기술과 응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분야로 설명되고 있다.

〈표 8〉에 나타난 총 33개 iSchool 대학 리스트는 iSchool 홈페이지의 iCaucus(iSchool 단

〈표 8〉 iSchool 가입 대학 현황

(2011년 11월 기준)

No	대학명	iSchool 명	클러스터	교수	학부
1	Drexel Univ.*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ociotechnical	46	✓
2	Florida State Univ.*	Colleg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formation	46	✓
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Computing	Computing	88	✓
4	Indiana Univ.*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23	
5	Indiana Univ.	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	Computing	63	✓
6	Pennsylvania State Univ.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s and Technology	Niche	38	✓
7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iche	54	✓
8	Syracuse Univ.*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Niche	44	✓
9	Univ.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	Sociotechnical	24	
10	Univ. of California, Irvine	Donald Bren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s	Computing	66	✓
11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Niche	60	
12	Univ. of Illinois *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28	
13	Univ. of Maryland *	College of Information Studies	Information	26	
14	Univ. of Michigan *	School of Information	Sociotechnical	37	✓
15	Univ. of North Carolina*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Library	32	✓
16	Univ. of Pittsburgh*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Sociotechnical	37	✓
17	Univ. of Texas, Austin*	School of Information	Library	20	
18	Univ. of Toronto *	Faculty of Information	Information	26	
19	Univ. of Washington *	The Information School	Information	41	✓
20	Carnegie Mellon Univ.	School of Information Systems and Management	Niche	68	
21	Singapore Management Univ.	School of Information Systems	Niche	35	✓
22	Nanjing University, China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34	✓
23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Berlin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29	✓
24	Royal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nmark		Library	NA	✓
25	UMBC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Computing	20	✓
26	University College Dublin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Library	8	✓
27	University College London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Information	3	✓
28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	Library	12	
29	University of Kentucky*	Colleg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tudies	Niche	60	✓
30	University of North Texas*	College of Information	Information	25	✓
31	University of Sheffield, England	Information School	Information	23	✓
32	University of Tampere, Finland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Niche	22	
33	Wuhan University, China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15	✓

* ALA 인증 문헌정보학과

1-19번: 2009년 이전 iSchool에 가입 대학

체를 나타내는 이름)에 나와 있는 대학을 각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총 교수(명)수는 iSchool 대학의 대부분이 학제간 병합을 한 경우라 2-3개 학과

나 전공을 각각 클릭하여 전임교원 수를 확인 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나 홈페이지가 잠시 새로 개편 중이라 열리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 직접 이메일을 하여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단 덴마크의 'Royal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학교에 대한 연혁이나 교수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서 NA(not available)로 명시하였다.

처음 리스트의 1-19번까지의 대학은 iSchool의 초기 설립 기간인 2005년-2008년 사이에 iCaucus에 가담한 대학으로 이중 총 17개 대학이 ALA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미국: 15개교, 캐나다: 2개교; *표시). 하지만 2009년 이후에 iSchool에 가담한 나머지 16개 대학 중 ALA 인가를 받은 대학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Kentucky', 그리고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3개 대학만이며 이러한 이유로는 2009년 이후로는 북미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대학이 iSchool에 대거

가담을 하게 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ALA 인가 대학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버클리대학의 경우 미국의 문헌정보학과 설립 초기인 1924년부터 ALA 인가를 받았다가 1994년으로 ALA 인가는 중단이 되었고 현재는 ALA 인가와 상관이 없이 도서관이라는 영역은 학과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채 'School of Information'으로 iSchool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4〉 참조).

하지만 Bonnici 외(2009)는 버클리대학과 같이 '도서관'('Library'단어)이 학과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iSchool 대학 중 문헌정보학과에서 출발한 대학들의 경우는 도서관의 개념이 학과 교수의 연구 영역이나 교과과정에 아직까지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표 9〉 참조). 즉 학과명 등은 정보학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는 여전히 도서관의 철학과 개념에 대한 영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iSchool과 다른 주요 문헌정보학과의 학과명, 교과명 등에 나타난 명칭 비교

Word Frequency Ranking	iSchools	Other Schools/Departments	iConference Abstracts
1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2	library	library	research
3	systems	services	technology
4	management	management	systems
5	services	systems	field
6	resources	resources	community
7	design	research	discipline
8	issues	issues	design
9	research	materials	students
10	development	media	social

출처: Bonnici et al, 2009, 26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호주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북미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33개 대학으로 확산된 iSchool(Information School) 운동의 사례조사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주요 현안 및 과제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은 지난 50여년 간 시대적 혹은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우선 시대적 변화로는 199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대학교육의 학부제를 도입으로 전면적인 교과 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11년 11월 기준, 전국의 34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 29개 대학이 학과제를 운영하고 있어 약 85%에 해당하는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과제 회귀 현상은 그동안 학부제 실시로 인한 전공이수학점 감소와 코어교과목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던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제 전환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학제간 융합적 교과과정 운영이나 정보학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iSchool의 확대 등의 혁신적인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인한 교육 영역의 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영역 안에서만 변화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와 방향을 주시하면서 보다 확대된 개념과 영역으로 교과과정의 변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헌정보학의 기술적·환경적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은 학과명이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대부분 개칭됨으로써 새로운 교과목이 대폭 개설되었으나 교과 내용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운용할 교수진이 각 대학에 4-5명인 현 상황에서 교육의 다양성이나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은 학제간, 융합화, 주제전문화 교육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과명이 대부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도서관'의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정보연구'(Information Studies), 혹은 '정보학'(Information)으로 학과 명칭이 개칭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 '기술'(Technology), '아카이브'(Archives) 등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도 대부분 대학에서 더 이상 'Library'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Computer' 등의 단어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과명의 개칭과 아울러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과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iSchool 운동은 이러한 개혁의 한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인증 기관이 없어 교육의 전문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석사과정에 미국도서관협회(ALA) 인가하는 인증 제도가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학부, 학사 후 과정, 그리고 석사과정을 위한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에서 인가하는 인증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무현장 조사 결과 호주의 경우는 구인공고에 자격증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격증보다는 실무경험이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경영관리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퍼스널 스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hool의 혁신적인 교육개혁 사례를 보면 문헌정보학 교육이 융합과 통섭을 통한 학제적 학

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과명이 개칭되고 학제적 통합을 통한 교육 방향의 변화 속에서도 현재까지는 문헌정보학의 '도서관'이란 근원과 철학은 교과과정 내용과 교수 연구영역에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 위에 도서관의 철학과 본질에 중심을 둔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2000.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관리학회지』, 17(3): 93-108.
- 곽동철. 2010.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 김성수. 1998.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도서관학논집』, 28(1): 355-383.
- 노동조. 2008.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 노영희. 2004.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노영희, 안인자. 2009.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29-450.
-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과와 의 언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엄영애. 2009.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09-427.
- 이제환 외. 2005.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 정재영. 2010. 문헌정보학 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보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5-223.
- 한복희. 1998. 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5-29.
- ALIA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07. *Enrollm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courses*. Retrieved Nov. 2011 from.

- <<http://www.alia.org.au/employment/enrolment/courses/>>.
- Ashcroft, Linda. 2004. "Developing Competencies, Critical Analysis and Personal Transferable Skills in Future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Review*, 53(2): 82-88.
- Boargman, Christine. 2000. *From Gutenberg to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Networked World*. MIT Press.
- Bonnici, Laurie J. et al. 2009. "Everything Old is New Again: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rom LIS to iFiel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263-274.
- Broady-Preston, Judith. 2009. "Profess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a Web 2.0 Environment: A case study of the UK." *New Library World*, 110(5/6): 265-279.
- Broady-Preston, Judith. 2010.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of the Future: Polymath or dinosaur?" *Library Management*, 31(1/2): 66-78.
- Chen, C. 2008. "Thematic Maps of 19 i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Choi, Youngok and Edie Rasmussen. 2009. "What Qualification and Skills are Important for Digital Librarian Positions in Academic Libraries?: A job advertisement analysi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5): 457-467.
- Dillon, Andrew and April Norris. 2005. "Crying Wolf: An Examination and Reconsideration of the Perception of Crisis in LI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280-298.
- Harvey, R. & Higgins, S. 2003. "Defining fundamentals and meeting expectations: trends in LIS education in Australia." *Education for Information*, 21: 149-157.
- Hilder et al. 2010. *Moving from LIS to IS+L: Curriculum Renewal at Charles Sturt University, Australia. In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Teaching and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IFLA Satellite Meeting, 8-9 August 2010.
- Hildreth, C. R. and M. Koenig. 2002. "Organizational Realignment of LIS Programs in Academia: From independent standalone units to incorporated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26-133.
- Kennan, M. A. 2006. "Changing Workplace Demands: What job ads tells us." *Aslib Proceedings*, 38(2): 179-196.
- Markey, K. 2004.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 Partridge, H. and G. Hallam. 2006. "Educating the Millennial Generation for Evidence Based Information Practice." *Library Hi Tech*, 24(3): 400-419.
- Partridge, H. et al. 2011. *A Profile of Australia's Information Education: A discussion paper from the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 Project Re-conceptualising and Re-positioning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www.lseducation.org.au/resources>>.
- Pettigrew, K. E. and J. C. Durrance. 2001. (Eds.) "KALIPER: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result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170-180.
- Reeves, Robert K. and Trudi Bellardo Hahn. 2010. "Job Advertisement for Recent Graduate: Advertising, curriculum, and job-seeking impli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03-119.
- Stephens, Derek and Yvonne Hamblin. 2006. "Employability Skills: Are UK LIM departments meeting employment needs?" *New Library World*, 107(5/6): 218-227.
- Van House, Nancy A. and Stuart A. Sutton. 1996. "The Panda Syndrome: An ecology of LI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131-147.
- Weech, T. L. and M. Pluzhenskaia. 2005. "LIS education and multidisciplinar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4): 319-329.
- Wilson, C. S. et al. 2010. "Fifty Years of LIS Education in Australia: Academization of LIS educator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4): 246-257.
- Wiggins, A. and S. Sawyer. 2011. "Intellectual Diversity in iSchools, Evidence from Faculty Compos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Yu, Hairong and Mari Davis. 2007. "The Case for Curriculum Reform in Australian Information Management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Part 1., Technology and digitization as drivers." *Information Research*, 12(4).